

기준 이상의 안전을 해야만 작업을 할 수 있는 무재해 사업장

1983년 Semi Conductor Processing Chemical을 생산하면서 시작한 에이지 이엠 코리아 주식회사는 평면 화면 디지털 TV, PC, 휴대폰, 의료영상 장비와 같이 평면 디스플레이 및 오프셋 프린팅에 사용되는 고순도, 최첨단 기술제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들의 첨단 기술은 2000년 SDI 품질우수상 수상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1998년 7월부터 시작된 무재해는 2005년 KOSHA 18001 인증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완성된다.

머리말

에이지 이엠 코리아 주식회사는 평면 디스플레이 시장에 감광제를 공급하고, 노광 인쇄 화학 제품 등 케미컬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사람이 직접 제조용기를 취급하는 것을 배제시켰다. 모든 원료는 파이프를 통해 지하저장고에서 5층 제조탱크로 Pumping 되고, 이후 모든 공정은 5층에서부터 1층까지 Top-Down 방식으로 충전, 여과, 출하, 적재 공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공정 자체가 석유화학공정에서와 같이 반응하는 물질 공정이 아니고 단순물질을 혼합하고, 여과하는 공정으로 심각한 위험요소는 없다.

그러나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 아세톤 등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위험물질로 화재·폭발 위험이 있고, 많은 양을 취급으로 누출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도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7월 이후부터 이어온 무재해는 이

러한 우려를 기우에 불과하게 하고 이내 무재해 10배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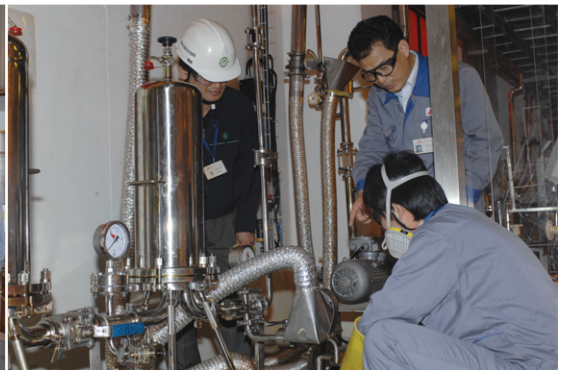
위험물에 대한 빈틈 없는 관리

아세톤 등 발화성 물질을 다량 취급함에 있어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탐지시설과 차단스위치를 각 제조탱크마다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누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질소에 의한 누출 감지 및 점화원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이 대표적으로, 제조탱크 오픈 시 유입되는 공기를 질소로 취환하여 정전기 등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고, 이중 구조의 제조탱크 사이에 질소를 유입시켜, 질소의 압력 변화로 누출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는 탐지시설이 있다.

이 밖에도 현장에 들어서면 위험물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위험물질 취급 장소의 모든 문은 완벽할 정도로





접지되어 있고, 조명시설, 스위치 등 접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곳은 방폭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추상수 부장은 “안전시설물은 과하면 과할 수록 좋은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안전을 위해서라면 기준 이상의 만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하는 무재해

2008년 무재해 10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에이지 이엠 코리아 주식회사에는 안전의 동반자가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이다.

매월 2번 찾아와 주는 김명현 지도원에 대해 추상수 부장은 “지난 9년간의 무재해가 근로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우려를 인근지역 사고사례 등 우리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극제 제시와 지도로 그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에이지 이엠 코리아 주식회사의 업무 특수성 때문에 특성에 맞는 지원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추상수 부장과 김명현 지도원은 발 빠르게 에이지 이엠 코리아 주식회사를 위한 벤치마킹을 통해 서로 배워가며 무재해 신기원을 이루고 있다.

맺음말

2005년 KOHSA 18001을 인증 받으면서 안전보

건경영시스템 도입이 시작된 에이지 이엠 코리아 주식회사는 2년이 지난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

처음 도입 시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3등급 이하의 공정을 지금은 위험도가 낮은 5등급으로 상향시켜 놓았고, 매년 재평가를 통해 유지관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에이지 이엠 코리아 주식회사의 또 하나의 “안전지킴이” 이다.

앞으로 모든 임직원이 뜻을 모아 달성할 무재해 3,400일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며,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이들의 신기록은 계속 될 것이다. 

〈최종덕 기자〉

깨지지 않으려는 무재해의 부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무재해 9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어느 누가 잘해서 이룩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모두의 숭선수범을 통해 이룩된 기록입니다.

아마도 무재해가 기록되고 깨지고 기록되는 학습적 반복이었다면 또 깨질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

러나 우리 회사는 지난 9년간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도 없었기에 지금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무재해를 깨뜨리지 말자”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의 무재해를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작은 실수를 감추려고 무리하다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무재해와 같은 기록은 영원히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나, 기록은 언젠가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고는 기다렸다가 때를 맞춰 발생하는 것이 아닌 지라, 가끔 무재해가 깨진다면 근로자가 다치지 않는 경미한 사고로 무재해가 깨졌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재해 기록에 연연하지 말고, 근로자들과 우리 에이지 이엠 코리아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영위할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그 시간만큼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집보다 더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 이경재 상무